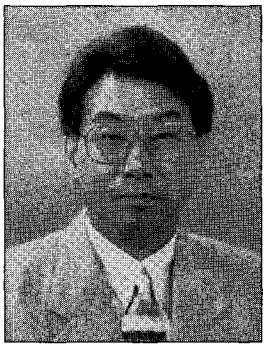
세계적인 종합회사로 재도약 발판 마련

시대상황에 따른 능동적 대처



◀ 김영서
(주)보성테크놀로지 대표이사

(주)보성테크놀로지는 Package Gravure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에서 1977년 보성산업공사로 설립, 종이, 지관 등을 생산하게 된다.

1996년 5월에는 (주)보성실업공사로 상호 변경, 플라스틱 진공 성형 및 BLOWER MOLDING LINE을 설치하고 우유병 및 성형제품을 생산 개시했다.

그러다 2002년 3월에는 (주)보성테크놀로지로 상호변경과 함께 연포장 관련 시설 설치로 차별화 및 경쟁우위를 확고히 할 수 있는 GRAVURE 인쇄가공 제품을 제조 생산하는 포장산업 종합회사로 거듭나면서 제2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보성은 9 Color Gravure Printing M/C, 8 Color Gravure Printing M/C 각각1대, 5 Layer Tendem Extrusion Laminating M/C 1대, Laminating M/C 1대 (Solvent), Laminating M/C 1대 (Non-Solvent), Wax Coating M/C 1대, Slitter M/C 3대, Rewinding M/C 1대의 다양한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설비를 통해 보성은 식품포장재 (라면, 스넥, 빵, 미곡류, 아이스크림, 빙과류), 산업포장재 (다이나마이트, 기능성 포장재), 생활용품 (샴푸, 린스, 액상포장, 제약포장), Retort pouch, Refill pouch, Standing pouch, 사출성형 (우유병)용기를 생산해 오고 있다.

지난 2002년에는 다이나마이트 코팅기계 라인을 설치해 다이나마이트 포장지를 생산하며 종합포장업체로 그 입지를 확고히 굳혀 나가고 있다.

지난 2002년 2월부터 보성을 이끌고 있는 김영서 사장은 화학과를 졸업하고 삼진화학(주)에 입사해 18년간 전문적인 이론을 확립한 전문 경영인이다.

김 사장은 삼진화학에서 근무할 당시 포장관

◀ (주)보성이 생산하는 각종 연포장 제품

련 기술인들과 많은 교류를 통한 대인관계로 보성과 처음 거래를 시작하게 되면서 인연을 맺게 된다.

"삼진화학을 퇴사한 후 보성의 현 회장님의 제의를 받게 됐고, 보성의 가족이 됐습니다"라며 김 사장은 설명했다.

김 사장은 보성을 이끌면서 제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심각한 인력난에 대해 지적했다.

"제조업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며 직원들의 다른 업체로간의 이동이 잦아 책임감이 많이 결여돼 있어 전문 인력이 절실한 실정입니다"라며 김 사장은 고충을 털어놨다.

때문에 김 사장은 "전문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교육이 실시되어 전문 기술 습득은 물론 젊은이들의 일에 대한 책임의식을 길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엔지니어 출신으로 작업 현장에서 직접 실무를 쌓은 전문인으로써 직원들의 고충을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다.

때문에 김 사장이 가장 우선시 하는 것이 바로 직원들의 안전이다.

"경영자와 직원이라는 상하 관계이기 전에 사람과 사람으로의 인격적인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때문에 직원들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생산성은 그 다음에 고려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라는 김 사장은 직원과의 수평 관계를 강조하며 여느 경영인들과는 달리 작업복을 입고 직접 현장에서 기계를 운전할 만큼 열린 경영을 하고 있다.

◀ (주)보성테크놀러지 개업 기념 컷팅식 장면

시대 상황에 능동적 · 적극적인 대처

김 사장은 "현재 국내 포장 분야는 가격 경쟁으로 과다출혈이 야기되고 있으며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라며 "때문에 자생력을 갖추고 한정돼 있는 국내 시장보다는 세계시장으로 눈을 돌려 신시장 개척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성 또한 "기술력 향상", "변화하는 시장에 능동적 대처"라는 경영 목표아래 기술을 체계화하고 보완하여 기초를 튼튼히 함은 물론 정보화, 국제화에 발맞추어 안목을 넓히고자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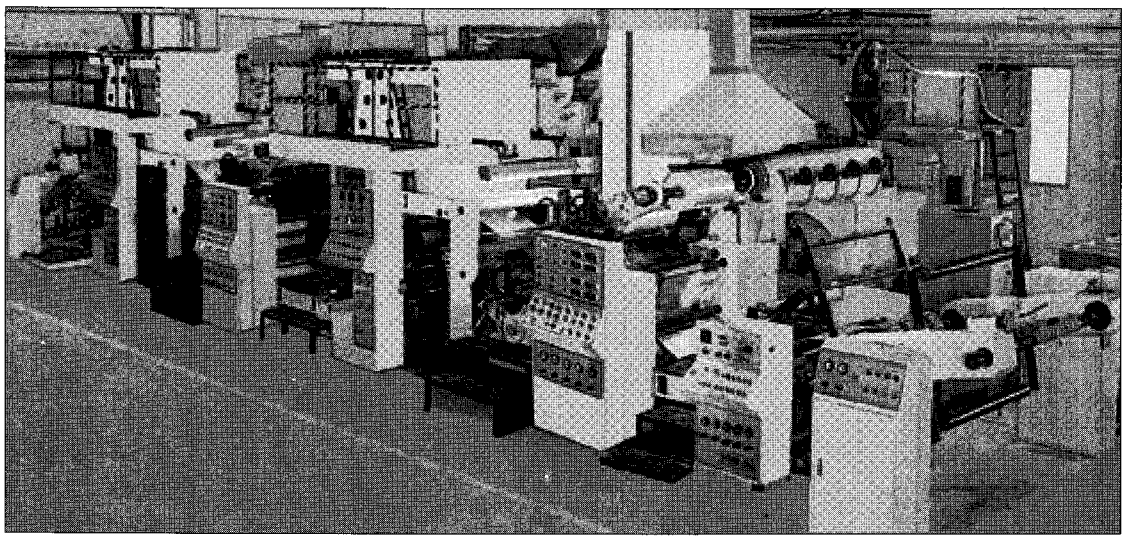
또한 지금까지의 수주산업에서 IDEA를 판매하는 적극 Markting을 통해 기업 모방이 아닌 독창적인 기술 개발로 방향을 바꾸고 수출을 통해 세계적인 종합포장회사로 거듭나고자 주력하고 있다.

보성은 그간 삼진의 물량을 전량 생산했으나 올해부터는 자생력을 갖추고 총 매출의 약 20%는 자체개발을 통해 생산 판매할 계획이며 이는 매년 10%씩 증가시킬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을 뒷바침 해주는 것은 31명의 보성 가족이 단기간에 육성된 인력이 아닌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인들로 구성돼 있다는 것과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직원들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직원들이 자유스러운 환경속에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배려를 하고자 하며 이렇게 되면 효율적인 생산성은 물론 의욕을 돋구어 능동적이고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돼 회사와 직원간에 WIN-WIN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보성은 이렇게 내부적인 안정을 꾀하고 우수한 제품 생산을 통해 외부적인 고객 만족에 주력하는 보성은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다.



▲ (주)보성의 보유 설비

포장업계 일익 담당

보성은 지난 2003년 1월부터 (사)한국포장협회의 회원사로 활동하게 됐다.

김 사장은 보성이 포장재 생산 업체로써 협회의 많은 사업에 참여해 포장 산업 발전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회 회원사들 간의 정보공유화를 통한 동종업계간의 상호협력으로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 것"이라며 "협회는 회원사들의 고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특히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인력수급, 가격경쟁, 정보 공유화 등 여러 측면에서의 문제점들이 협회를 통해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김 사장은 말했다

한국 경제가 고도 성장기를 거쳐 성숙기에 들었고, 특히 소비자들의 고기능, 고부가, 고품질의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계속되는 한, 포장제품을 활용한 포장기술의 발전은 필연적이다.

이에 따라 끊임없이 신제품, 신기술의 개발은 물론, 기존제품의 단점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응용제품 등의 개발이 시급하며, 기술개발에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술개발의 선도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마케팅 및 영업능력 향상과 제조 기술의 보완을 통해 최고의 포장전문 회사로써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김 사장은 "다각도로 발전하는 산업구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더 나아가 세계화에 한 걸음 앞서 나아가기 위해 정보의 공유화를 통한 기술적 공동개발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진화된 기술로 생산된 고품질 제품에 대한 고객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산업화에 따른 다양한 포장제품을 끊임없이 연구해 나가고 있는 보성의 앞으로의 행보에 기대를 걸어 본다. ko

권해진 기자